

근세 일본지식인의 정보활동과 조선관련 정보의 유통*

허지은 _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근세 일본에서의 조선관련 정보의 유통
- III. 하야시 호코(林鳳岡)의 '정보수집활동'과 '지식'의 형성
- IV. 가와구치 세이사이(河口静斎) '조선지식'과 정보유통
- V. 맺음말

국문초록

근세 일본은 '쇄국'의 시대로 표현된다. 에도막부는 쓰시마(對馬)藩·사쓰마(薩摩)藩·마쓰마에(松前)藩·나가사키(長崎)로 대외창구를 제한했으며,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해외정보는 에도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유통되고 영향을 주었다.

이 가운데 조선관련 정보는 에도시대 지식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을까. 또 입수한 정보는 어떤 내용이었으며, 어떻게 유통되었을까. 에도막부의 유관으로서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야시 호코는 당시 조선통으로 알려져 있는 쓰시마번의 유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에게 직접 조선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호슈는 그의 요청에 따라 『조선풍속고(朝鮮風俗考)』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7713)

역사를 비롯하여 이성계가 조선의 국왕이 된 이유와 조선의 무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관련 정보는 호코가 『화이변태(華夷變態)』 등 해외정보의 정리·편찬 작업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당시 일본의 일반 지식인이었던 가와구치 세이사이(河口靜齋)는 기노시타 준양(木下順庵)의 제자였던 스승 무로 규소(室鳩巢)를 비롯하여 관련 인맥을 통해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그가 입수한 정보는 당시 교류했던 히젠(肥前) 가시마번(鹿島藩)의 다이묘(大名) 나베시마 나오사토(鍋島直郷), 그의 유관(儒官)이었던 시모무라 나가미쓰루(霜邨長盈)에게 유통되었다. 이 조선관련 정보는 이후 나가미쓰루가 편집한 『병필록(秉筆錄)』에 일본과 중국의 학예(學藝), 네덜란드, 류큐(琉球)에 관한 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다른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조선정보, 쓰시마번, 하야시 호코(林鳳岡), 가와구치 세이사이(河口靜齋), 나베시마 나오사토(鍋島直郷), 『병필록(秉筆錄)』, 지식인, 시모무라 나가미쓰루(霜邨長盈)

1. 머리말

근세 일본은 ‘쇄국’의 시대로 표현된다. 에도막부는 쓰시마(對馬)藩·사쓰마(薩摩)藩·마쓰마에(松前)藩·나가사키(長崎)로 대외창구를 제한했으며,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해외정보는 에도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외창구가 없었던 지역인들에게도 유통되고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들에게 해외정보와 지식이 유통되고 확산된 상황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일본인들의 해외에 대한 관심이 어떤 분야에까지 미쳤는지,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에도시대의 해외정보에 관한 연구로는 에도막부의 대외정책과 네 개의 대

외창구를 통해 들어온 정보의 전달경로와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¹⁾ 또한 무역을 위해 나가사키를 방문한 네덜란드인들이 유럽과 동아시아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한 『네덜란드 풍설서(風說書)』와 중국상인들이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한 내외정세에 관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당선풍설서(唐船風說書)』를 소개하고 그 내용분석과 아울러 사료적 가치를 밝힌 연구가 있다.²⁾ 한편 조선과 조선 경유의 중국 정보수집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쓰시마번의 조선어통역관인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의 존재에 주목한 연구³⁾와 그들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고 에도막부(江戸幕府)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막부의 로주(老中) 등 유력인사에게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사례 등을 밝힌 연구도 있다.⁴⁾

기존 연구를 통해 에도시대 네 개의 대외창구를 통해 들어온 정보가 에도막부에 전달된 경로를 비롯하여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해외정보수집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통역관들의 활약상과 그들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 유출 정황도 밝혀졌다. 그러나 해외정보가 당

-
- 1) Toby, Ronald P,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 創文社, 1990, 岩下哲典, 真栄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岩田書店, 1997, 保谷徹編, 『幕末維新と情報』, 吉川弘文館, 2001, 大友一雄, 『江戸幕府と情報管理』(原典講讀セミナー/ 国文学研究資料館編 原典講讀;11), 臨川書店, 2003, 岩田みゆき, 『黒船がやってきた : 幕末の情報ネットワーク』(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191), 吉川弘文館, 2005, 岩下哲典, 『江戸の海外情報ネットワーク』(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 207), 吉川弘文館, 2006.
 - 2) 姫野順一, 『海外情報と九州: 出島・西南雄藩』, 九州大学出版会, 1996, 片桐一男, 『日蘭交流史: その人・物・情報』, 思文閣出版, 2002, 松方冬子, 『オランダ風説書と近世日本』, 東京大学出版会, 2007; 松方冬子, 『オランダ風説書: 「鎖国」日本に語られた「世界」』, 中央公論新社, 2010; 松方冬子, 『日蘭関係史をよみとく 上巻: つなぐ人々』, 臨川書店, 2015, 風説書研究会, 『オランダ別段風説書集成』, 吉川弘文館, 2019.
 - 3) 米谷 均, 『対馬藩の朝鮮通詞と情報』『歴史手帖』22卷4號, 1994, 木村直也, 『朝鮮通詞と情報』, 岩下哲典, 真栄平房昭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東京: 岩田書店, 1997, 김강일, 『조선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9, 2008.
 - 4) 許芝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松尾晋一, 『華夷變態』と對馬宗家からの「唐兵亂」情報, 『研究紀要』1, 2016.

시 지식인과 일반인들에게 유통된 사례와 그 내용 등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시기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다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던 에도막부 말기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나가사키 창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가사키를 통해 수집되었던 정보에 대한 다이묘, 지식인들의 정보활동과 인식 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근세시기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떠한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세 일본에서 지식인에게 유통된 조선관련 정보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조선풍속고(朝鮮風俗考)』⁶⁾, 가와구치 세이사이(河口静齋)의 구술내용이 담긴 『병필록(秉筆錄)』⁷⁾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근세시기 일본에서의 조선정보의 유통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호슈의 『조선풍속고(朝鮮風俗考)』를 중심으로 당시 에도 막부의 관리였던 지식인 하야시 호코(林鳳岡)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조선관련 정보를 얻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시모무라 나가미쓰루(霜邨長胤)의 『병필록』을 중심으로 일반 지식인이 입수한 조선관련 정보의 내용과 유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세 에도 막부가 대외창구를 제한하고 해외정보를 통제하려 했던 그 이면의 상황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5) 片桐一男, 「江戸時代の海外情報-鷹見泉石の情報活動-」, 佐藤隆一, 「オランダ別段風説書 -その公的回覧と私的書寫-」, 岩下哲典, 「徳川慶勝筆寫の嘉永四・五年別段風説書と黒田齊溥の嘉永五年對外建白書-別段風説書と雄藩大名の海外情報の認識再考-」(『風説書研究会, 『オランダ別段風説書集成』, 吉川弘文館, 2019.), 井田清子, 『江戸知識人の世界認識』, 水聲社, 2008, 開國百年記念文化事業會乾, 元社, 『鎖國時代日本人の海外知識-世界地理・西洋史に關する文獻解題』, 乾元社, 1953.
- 6)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雨森芳洲全書 三)』 『朝鮮風俗考』, 關西大學出版部, 1982. (이후부터 「朝鮮風俗考」로 기재)
- 7) 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秉筆錄』, (祐徳稻荷神社 中川文庫 1/6/3486,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23567/viewer>) 이후부터 『秉筆錄』으로 기재.

II. 근세 일본에서의 조선관련 정보의 유통

근세 에도막부에서는 중세이후 쓰시마번의 조선무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자연환경에 따른 궁핍한 번의 재정을 고려하여 조선과의 교섭과 무역, 대륙관련 정보의 수집 등을 일임하였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조선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통신사행이 공식적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와⁸⁾ 조선인이 일본에 표류해 왔을 때, 조선관련 서적을 통해, 그리고 쓰시마번에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정보제공에 의해서였다.

1. 통신사행을 통한 정보유통

통신사행은 에도시대 전 기간에 세 차례의 회담겸 쇄환사를 포함하여 모두 열두 차례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 에도막부는 통신사행과 정치·외교적 사안의 교섭과 해결이라는 부분에 치중했지만 에도막부의 유관(儒官)들은 2~30년에 한 번씩 파견되어 오는 통신사행과 필담창화(筆談唱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신사행에 대한 접대를 담당했던 각 번의 유학자나 문인들도 통신사행의 숙소를 방문하여 학술문답을 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행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컸다. 『오쓰키미닛키(御月見日記)』에는 1748년 가코가와(加古川:현재 효고(兵庫)현 남부의 강) 후타고(二子) 마을의 구경꾼 배가 조선선박에 빨려 들어가 배 밑에 깔리기 직전에 어른과 아이 등 7~8명이 갑판에 인양되어 죽음을 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의 배로 인양된 후 배 위에서는 구경꾼 배에 탔던 일본인이 들고 온 샤미센(三味線)이 연주되고 조선의 악공들은 조선악기

8)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공식사행에는 문위행도 있었지만, 문위행의 최종 목적지가 쓰시마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타 지역으로의 정보 유통은 쓰시마번의 정보제공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외하고 다루지 않았다.

를 연주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들 중에는 조선인에게 글을 써서 받은 자도 많았고, 만두와 양갱을 받기도 했다. 조엄(趙巖)의 『해사일기』에도 통신사행이 히젠(備前; 현재 오카야마(岡山)현) 앞바다를 지날 때 작은 배에 올라탄 일본인 구경꾼들이 조선 배에 다가가 글씨를 얻으려다 침몰할 뻔했다가 구조된 경우가 기록되어 있다.⁹⁾ 하나부사 잇초(英一蝶)의 「조선통신사소동도(朝鮮通信使小童圖)」¹⁰⁾에는 일본인이 종이를 들고 있고 말 위에 앉은 소동이 붓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물론 사전에 조선 배나 통신사 행렬에 가까이 가면 안된다는 에도막부의 지시에 따른 번 내에서의 포고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통신사행을 통해 조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조선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려했던 막부의 의도와는 달리 통신사행과의 접촉을 통해 조선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유학자와 문인들은 이 정보를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또는 책으로 집필하여 유통시켰고, 일반인들은 직접 보고 들은 대로 행렬을 흉내 내기도 하면서 통신사행렬이 지나가지 않은 지역에까지 조선관련 정보를 유통시켰다.

2. 조선인 표류민을 통한 정보유통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의 연구에 의하면 1599년부터 1872년까지 조선인이 일본에 표류한 건수는 971건이다.¹¹⁾ 일반인들의 해외 도항이 금지되어 있던 에도시대에 조선인 표류민을 통한 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식적인 외교사절인 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제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9) 신기수 지음·김경희 옮김, 『조선통신사의 여정』, 월인, 2018, p.48.

10) 오사카박물관 소장 '신기수 컬렉션'

11) 에도시대 표류민 연구로는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臨川書店, 1998.) 참조.

조선인 표류민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라는 점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 표류민의 일본 내 표착지역이 규슈(九州)와 나가토(長門), 산인(山陰)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조선인 표류민에 의한 정보는 표착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사츠마에서 수집·유통되었던 조선관련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인 『표민대화(漂民對話)』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상권은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로 호송되는 날까지의 사츠마 조선어통사의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심문과 대화내용을 담고 있다. 중권은 왜관의 구조·쓰시마의 연례송사(年例送使)·조선과 일본의 관계·조선의 문물 등 조선에 관한 조선어통사와 조선인 표류민 사이의 대화내용, 하권은 표착선의 수리, 일본과 조선 배에 관한 문답 내용으로 되어 있다.¹²⁾

해외도항이 금지되고 통신사행이 지나가는 길목도 아닌 사쓰마 지역에서 조선인 표류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쓰마에서는 이 내용을 『표민대화』라는 책으로 만들어 조선어학습을 위한 교재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조선인 표류민을 통한 조선정보는 사쓰마 지역민들의 조선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관련 서적을 통한 정보유통

일본역사의 시작부터 1867년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인이 쓰고, 편집, 번역한 책이 일본의 어느 도서관과 문고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국서총목록(國書總目錄)』¹³⁾에서 ‘조선(朝鮮)’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서적

12) 허지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p.192.

13) 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https://kotenseki.nijl.ac.jp/page/kokusho.html>

만 546종류가 있다. 이 책들 가운데는 소군(將軍)의 시장(侍講)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남긴 조선관복의 건(朝鮮冠服の事)이나 에도막부의 문서와 기록을 담당하는 우히쓰(右筆)였던 야시로 히로카타(屋代弘賢)가 남긴 『조선왕복서식(朝鮮往復書式)』 등 막부에서 대조선 업무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남긴 책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이후 대조선 업무에 관여하는 직책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가 교토지역에서 유숙하는 장소로 이용한 쇼고쿠지(相國寺)의 선승(禪僧)인 다이텐 겐조(大典顯常)가 남긴 『朝鮮小記』, 센고쿠(戰國)시대 무장이었던 오오코 우치히데모토(大河内秀元)가 남긴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 등도 있다. 『조선정벌기』라는 제목으로는 여러 저자에 의해 여러 종류가 남아 있다. 이러한 책들 역시 일반인들에게 조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실제로 에도시대의 장서가로 알려져 있는 오타 난포(大田 南畝)의 장서 목록을 보면 17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조일관계 관련 기록을 열심히 수집하고 필사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수집한 책 가운데에는 『조선본법화경(朝鮮本法華經)』도 포함되어 있다.¹⁴⁾

4. 쓰시마번의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유통

쓰시마번에서는 수집한 조선·대륙관련 정보는 쓰시마번 - 에도 쓰시마번저(藩邸) - 로주(老中)·하야시가(林家)의 경로를 거쳐 막부소군에게 보고되었다. 에도막부에는 조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로주가 지정되어 있었고, 쓰시마번 에도번저에서는 이 로주에게 조선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했다.¹⁵⁾ 그

14) 井田清子, 앞의 책(2008), pp.18~19.

15) 에도막부의 조선관련 업무담당 로주에 관해서는 허지은, 「근세 막번체제 속의 쓰시

러나 쓰시마번에서는 경우에 따라 조선관련 업무 담당 로주 이외에 오메쓰케(大目付)를 비롯하여 쓰시마번의 막부에 대한 입장과 의사표명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였다.¹⁶⁾ 또한 다른 번 루스이(留守居)들과의 조합(組合)을 통해서도 정보를 유출하기도 하였다.¹⁷⁾

한편 에도막부의 간쥬부교(勘定奉行) 등이 특별한 업무로 쓰시마번 에도번저의 사람을 부를 일이 있을 때에는 그달의 조선관련 업무 담당 로주에게 의뢰를 하면 로주가 쓰시마번 에도번저에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1717년 11월 27일부터 로주 츠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는 고요닌(御用人)을 통해 몇 차례 쓰시마번 에도번저의 가로를 호출했다. 그 이유는 조선관련 업무담당 로주를 계속해서 담당하게 되면서 조선과의 교역품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정보입수를 위해서였다.¹⁸⁾

쓰시마번에서는 자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도 조선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선관련 정보는 에도막부의 의도와 다르게 정해진 경로 이외의 인물과 지역에까지 정보가 유통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쓰시마번을 통하지 않고 조선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었지만 에도막부에서 조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국체험이 자유롭지 못했던 일반인들에게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조선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유통시켰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당시 지식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얻고 지식으로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서 당시

마번」『일본역사연구』 43, 2016. 참조.

16) 허지은, 「근세 쓰시마의 바쿠후로의 정보보고와 유통」 『한일관계사연구』 37, 2010, p.112, 松尾晉一, 「『華夷變態』と對馬宗家からの「唐兵亂」情報」 『研究紀要』(1), 2016, p.7.

17) 허지은, 앞의 논문(2010), p.112.

18) 허지은, 앞의 책(2012), pp.146~152.

에도막부의 儒官이었던 하야시 호코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하야시 호코의 ‘정보수집활동’과 ‘지식’의 형성

하야시 가문은 에도막부의 유가(儒家)로 대대로 임명되었던 집안이다. 하야시 가문의 시조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으로 주자학과 유학자였다. 그는 막부의 유학 고문으로 에도시대에 ‘사상계의 쇼군’으로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야시 호코는 바로 이런 라잔의 손자였다. 그의 약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하야시 호코의 약력

연도	약력	당시 쇼군
1644년 12월 14일	에도에서 출생	4대 도쿠가와 이에쓰나 (1651~1680)
1664년 8월	도쿠가와 이에쓰나(徳川家綱)에게 인사	
1664년 12월	속발개복(束髮改服) 후 종5위하(從五位下)에 서임. 슌조(春常)으로 개명	
1680년 2월	가독 상속	5대 도쿠가와 쓰나요시 (1680~1709)
1682년	조선신사어용으로 근무	
1685년	야에스(八重洲) 강가에 1000평 정도의 야시키지(屋敷地) 받음	
1686년 9월	무덕대성기(武徳大成記) 편집완성	
1687년	대장경법인(大藏卿法印)에 서임되고 홍문원학사(弘文院學士) 칭호 받음	
1691년	유시마(湯島) 昌平坂(쇼헤자카)에 새로 조성된 성당 제주(祭酒) 근무/ 삭발 후 다이가쿠노카미(大學頭)로 불림	6대 도쿠가와 이에노부 (1709~1712) 7대 도쿠가와 이에쓰구 (1713~1716)
1719년	조선신사래빙어용(朝鮮信使來聘御用)으로 근무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 (1716~1745)
1719년 4월	노령으로 은거	
1732년 6월 1일	89세로 사망	

*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1993, 安井小太郎 著, 『日本儒學史』, 富山房 1939, pp.32~34를 참조하여 작성.

하야시 호코는 에도막부의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徳川家綱)부터 5대 쓰나요시(綱吉), 6대 이에쓰구(家繼), 7대 이에노부(家宣), 8대 요시무네(吉宗)까지 모두 5명의 쇼군을 모셨다. 특히 8대 쇼군 요시무네에게 신임을 받아 관료육성 기관 다이가쿠료(大學寮)의 최고 직책인 다이가쿠노카미(大學頭)에 임명되었다.¹⁹⁾ 그는 여러 명의 쇼군을 모시는 동안 막부의 문서행정을 담당하는 한편, 1682년, 1719년에는 조선에서 파견한 통신사의 접대를 담당했다.

1711년의 조선 통신사행 일본방문과 관련하여 아라이 하쿠세키의 제안으로 빙례의식개정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부아츠는 거세게 반대했지만 개정된 빙례의식이 거행되었다. 요시무네가 8대쇼군으로 취임한 후 하쿠세키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 쇼군의 취임축하를 위해 파견될 조선의 통신사행에 대한 예와 관련하여 에도막부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하야시 다이가쿠노카미 노부아츠 등이 어전에서 조선신사 접대의 예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곧 그 달의 담당 로주(宿老)와 함께 회의하도록 지시하여 1711년의 예(例)를 폐하고 1682년의 구례에 따르도록 하였다.²⁰⁾

이로써 1719년 통신사행의 접대의 예는 1682년의 접대 예로 환원되는데 이 결정에 하야시 호코가 관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호코는 1719년 통신사행이 에도에 도착한 다음날 바로 아들 노부미츠(信充)과 노부토모(信智)를 데리고 가서 통신사행과 학문적인 문답을 하고 시문을 주고받았다.²¹⁾ 그는 통신사행의 접대를 담당하지 않았던 1711년 통신사행 때도 유학자로서 두 아들과

19) 이때 머리를 다시 기르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승려와 같은 모습이어서 했던 유학자가 무가계급사회에서 武士와 같은 서열로 취급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20) 『有徳院殿御實記』권 4 (三宅英利 지음·손승철 옮김, 『근세한일관계사연구』, 이론과 실천, 1991, p.317에서 재인용)

21) 三宅英利 지음·손승철 옮김, 『근세한일관계사연구』, 이론과 실천, 1991, p.348.

함께 통신사 일행을 방문하여 시문을 주고받기도 했다.²²⁾

이처럼 하야시 호코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행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례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문을 주고받는 과정만을 통해서만 충분한 파악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호코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 ‘조선통’이라 불렸던 호슈에게 직접 조선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호슈는 쓰시마번에서 조선과의 외교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유학자이다. 그는 1689년 스승이었던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추천으로 쓰시마번에 취직하게 되었다. 그 후 두 차례의 나가사키 유학과 조선유학 후 쓰시마번으로 가서 근무하였고, 1711년, 1719년 통신사행 때에는 쓰시마번의 진문역(眞文役)으로 에도까지 통신사 일행을 수행하였다. 1719년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결정되고 에도에 있었던 호슈는 1719년 2월, 조선통신사행을 안내하기 위해 부산에 파견되는 영빙참판사(迎聘參判使)의 도선주(都船主)에 임명되자 4월에 쓰시마로 돌아왔다. 6월 27일에 조선통신사행을 안내하여 쓰시마에 도착했고, 7월에 진문역으로서 통신사행을 호위하여 에도에 갔다 10월 15일 에도를 출발하여 12월 21일에 쓰시마로 돌아왔다.²³⁾

그리고 이듬해 1월 조선관련 정보를 정리한 「조선풍속고」를 쓰시마번 에도번저를 거쳐 호코에게 제출하였다. 「조선풍속고」의 내용은 조선의 풍속과 조선의 무기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22) 『東槎日記』乾「日記補」, 1711년 10월 27일. “太學頭 하야시 노부아츠(林信篤) 및 그의 두 아들 講官 노부미츠(信充)과 노부토모(信智), 그리고 翰林 木寅亮·高玄岱·平元成이 모두 詩啓를 드렸다.”

23) 滋賀縣教育委員會編集, 『雨森芳洲關係資料調査報告書』, 高月町立觀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 1995, pp.154~155.

〈표 2〉 「조선풍속고」 내용

	朝鮮風俗之事	武器之事
1	고려의 성립부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배경	조선의 무기와 조선에서의 철포사용
2	고려가 멸망하게 된 이유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과정	
3	이성계의 인물됨과 그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 이유	
4	명나라 때까지의 조선과 중국의 관계	
5	조선으로 국호를 정한 배경	
6	조선과 중국의 사자파견과 조선의 청나라에 대한 태도	
7	조선이 청나라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청나라의 입장	
8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문제	

우선 조선의 풍속에 관한 내용은 모두 8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1~3항목은 조선 건국의 배경이 되는 고려의 역사와 이성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7항목은 조선과 중국(명, 청)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8항목은 당시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다. 각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항목은 왕건이 고려의 국왕이 된 이유와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배경, 고려의 신료였던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이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쓴 것이 태조가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한 1392년부터 329년이 지난 때라고 되어 있어²⁴⁾ 작성 시점이 172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은 고려가 멸망하게 된 이유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고려가 멸망한 이유를 공민왕의 후계자였던 우왕의 혈통이 가진 문제와 우왕이 대외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민왕이

24)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첫 번째 항목

당시 때때로 권세 있는 신하였던(權臣) 신돈(辛旽)의 집에 방문했고, 신돈의 비첩인 등여(登如)를 총애하여 사내아이 우(偶)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가 신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우왕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요동정벌 등 명나라에 대적하고 친 원정책을 쓰는 등 대외정책에도 문제가 있어 결국 당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이성계가 우왕,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웠으나 결국 공양왕도 폐위되고 이성계가 조선의 국왕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⁵⁾

사실 이성계는 고려조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명분을 쌓은 뒤 요동정벌, 명나라 공격에 참전하여 압록강 위화도까지 갔다가 반란을 일으켜 역으로 고려 조정을 공격하여 우왕을 쿠데타로 몰아냈다. 그 후 4년 동안 권력 장악 준비 작업 끝에 마침내 공양왕을 쫓아내면서 역성혁명에 성공하여 조선을 개국했다. 호슈가 호코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이성계의 쿠데타로 왕권을 빼앗긴 우왕과 역성혁명의 대상이었던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명분과 정당성만 드러나 있다.

이어서 세 번째 항목에는 이성계의 인물됨과 그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 이유에 관한 내용이 있다.

나라 안 사람들이 이성계를 따른 이유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문무에 있어 제일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으로 너그럽고 어진 마음씨와 생각, 재주와 식견이 모든 사람들 보다 뛰어나고 또한 무예와 용맹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고려 중엽부터 왜구라고 해서 일본의 시고쿠·규슈의 적선들이 저 나라를 범하고 특히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려 말 공양왕과 신우 대가 되어서는 왜구가 점차 심해져 대대적으로 매달 일본의 해적이 저 나라에 들어가 변경

25)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두 번째 항목

을 범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성계가 이 한 사람과는 지리산 싸움, 해주 싸움, 승천부 싸움, 운봉싸움, 함주 싸움에서 한 번도 승리한 일이 없습니다. 일본의 해적이 모두 그 해에 죽임을 당했고, 그 외에도 무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자들이 일부는 그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복종하고 일부는 그 무예와 용맹에 복종한 후에, 고려의 정사가 하루하루 쇠퇴하고, 신우와 신창이 왕씨의 혈족이 아니고 공양왕은 타고난 품성이 비겁하고 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대를 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²⁶⁾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그가 너그럽고 어진 마음씨와 생각, 재주와 식견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예와 용맹에 있어서도 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 우왕과 창왕은 왕씨의 혈족이 아니고 공양왕 역시 타고난 품성이 비겁하고 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 역시 조선건국의 당위성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네 번째 항목은 주나라 무왕 때 기자가 한반도의 왕으로 봉해진 이후 그 자손이 계속 이어져 중국 성인의 덕화가 자연스럽게 나라 안에 미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중국풍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원나라 때 만주인이 중국의 천자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원나라를 따랐지만, 명나라의 군병이 1368년 9월에 연경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원나라 천자가 본국으로 도망하여 돌아간 이듬해 4월 명나라 태조 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뜻을 조선에 알린 이후에는 서둘러 만주 옷을 버리고 변발을 금지하고 홍무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고려 대신 조선이라고 한 이후에는 더욱 명나라와 군신의 예의를 취했다고 하는 내용이다.²⁷⁾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변함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6)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세 번째 항목

27)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네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은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킨 후 나라 이름을 和寧나 조선 둘 중에 하나로 바꾸자 한다고 명나라에 물었을 때 명나라 태조가 지시하여 조선으로 국호를 정했다는 내용²⁸⁾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 결정이 중국 황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여섯 번째 항목은 조선에서는 중국에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동지사 와 황력사를 파견하며 그 외에 조선국왕이 사망하면 시호를 받는 사자를 보내며, 중국에서도 책봉사라고 해서 국왕의 즉위를 허락하는 사자를 조선에 보낸다고 하여 조선과 중국 사이에 파견되는 사자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은 중국의 제후왕이기 때문에 대체로 나라 안의 큰일은 모두 사자를 파견하여 중국의 지시를 청하며, 지금 청나라가 된 이후에도 군신의 예를 다하는 것은 명나라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는 원래 이적이었기 때문에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 보내는 서한에 강희의 연호를 쓰지 않는 것도 이적의 연호를 꺼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²⁹⁾는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해 사례를 들어 호슈의 의견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

일곱 번째 항목은 조선이 청나라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청나라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다.

청나라가 된 이후 중국은 모두 만주인의 옷을 입고 머리털을 깎는데 조선은 왜 명나라 때와 같이 하고 바꾸지 않는지 물어보면 청나라로 교체되고 초에 명령이 있었지만 머리털을 깎고 만주인의 옷을 입는 것은 조선이 멸망하더라도 못한다고 거절하여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선은 기미 지역이라고 해서 정월초하루에 모든 군신이 의식을 행하

28)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다섯 번째 항목

29)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여섯 번째 항목

는 것까지만 해서, 중국의 제후 왕과는 사정이 다르고 게다가 만주인의 정이 한인처럼 지나치게 번거로운 예의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 대로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³⁰⁾

호슈는 청나라가 된 이후에도 조선이 청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명나라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데 의구심을 품고 조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 조선이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와 함께 조선의 태도가 조선의 지리적 입지와 청나라 사람들의 성향 때문인 것 같다는 호슈의 견해를 함께 피력한 내용이다.

여덟 번째 항목은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국을 예의의 나라라고 하고 또는 약한 나라라고 일본인이 습관적으로 말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에서 어떤 나라라도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국내의 정치가 잘 다스려지고 평온하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의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조선만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이적 가운데 조선만 옛날부터 중국을 우러러보고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특히 시종 군신의 예를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선보다 예의가 되는 것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다만 관혼상제의 예에 있어서 상하 모두가 문공가례의 법을 따르고 학문을 좋아하고 문자를 즐기는 것이 다른 이적에게는 이겨도 모든 예의·풍속이 반드시 만국으로 퍼진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조선을) 약국이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 도요토미 태합이 조선공격 때 많은 조선인을 죽인 일을 전해 듣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때 그 나라는 정치가 잘 다스려지고 평온한 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무비를 입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난세가 계속되어 국내의 모든 장수와 모든 병사가 전투에 뛰어난 자가 많이 있어서 뜻밖에 전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패하게 되었지만, 죽거나 상처를 입은 자를 보면 이쪽저쪽 모두 사상자가 많았고, 진으로 돌아올 때에는 일본인도 매우 힘들

30)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일곱 번째 항목

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조선인은 성품이 끈질기고 꺾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는 전쟁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했지만 시간을 가지고 꺾히게 되면 일본인은 오히려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대체로 어떤 나라도 이것은 강한 나라 이것은 약한 나라라고 언제까지나 정해진 나라는 없다고 하면 일본의 무비가 쇠퇴할 때에 이르면 반드시 깔보고 농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³¹⁾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 예의의 나라, 약한 나라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예의에 있어서만큼은 조선이 다른 이적들에 비해 당연 최고이고 중국에서도 칭찬을 하긴 하지만 모든 예의와 풍속이 반드시 모든 나라로 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많은 조선인을 많이 죽인 일을 전해 듣고 조선을 약한 나라라고 자주 이야기 하는데 당시 일본의 사상자도 조선 못지않게 많았고 진으로 돌아올 때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다. 조선인은 성품이 끈질기고 꺾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꺾한다면 일본이 오히려 불리할 것이고, 어떤 나라도 약하고 강한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무비가 쇠퇴하게 되면 조선으로부터 깔보고 농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의 무기와 관한 부분에서는 조선의 무기와 조선에서 첩포를 사용하게 된 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선의 무기는 활을 제일이라고 합니다. 무예에 뛰어난 자를 무예로 선발하는 과거시험에 급제 시키는 것도 오로지 활을 가지고 무예를 시험합니다. 그 외에 칼과 창도 있지만 칼과 창을 가지고 급제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칼을 쓰고 창을 쓰는 면밀한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

31) 「朝鮮風俗考」朝鮮風俗之事 여덟 번째 항목

습니다. 도요토미 태합이 조선을 공격할 때까지는 저 나라에 철포가 없어서 일본 쪽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통 안에서 철환을 쏘아 보내 여기에 맞는 자는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모든 병사가 두려워하여 매번 패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철포를 이용하고 익혀서 지금은 철포에 능숙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무기로 활을 제일로 치며 칼과 창도 있지만 과제 시험에서는 활만 가지고 무예를 시험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조총을 사용하게 된 연인은 임진왜란 때 처음 조총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일본의 조총에 조선 측 병사들이 두려워하여 매번 패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선에서 조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조선풍속고」 마지막 부분에 “다이가쿠노카미님께서 막부의 업무를 위해 지시하셨기 때문에 적어서 에도로 보내드립니다. 경자년 정월”이라고 되어 있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조선풍속고」 집필한 이유는 하야시 호코에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쓰시마번 에도번저 매일기에는 1719년 교호(享保)통신사행이 에도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기록이 없다. 매일기에 “신사(信使)에 관한 사항은 남김없이 집서(集緒)에 기록했으므로 생략한다”고 되어 있고,³²⁾ 통신사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에 소장되어 있는 쓰시마번 종가문서 중에는 『요시무네사마고다이코시고요무키누키가키(吉宗様御代公私御用向拔書)』라는 기록이 있다. 에도막부의 8대 쇼군이었던 요시무네 때의 공적·사적 용건으로 막부와 쓰시마번 사이에서 질의하고 그에 대해 대응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에도막부에서 쓰시마번에 조선과 관련

32) 『御留守毎日記』式番(江戸藩邸毎日記)(東京大史料編纂所 所藏; 請求記号: 宗家史料-1-158)

하여 어떠한 요구와 질의를 했고 쓰시마번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쓰시마번저에서 에도막부에 어떠한 문의를 했고, 조선관련 업무담당 로주에게 어떠한 사안을 보고했는지 알 수 있다. 『요시무네사마고다이코 시고요무키누키가키』는 모두 22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조선과 관련된 항목은 40개 항목이 있는데,³³⁾ 이 항목가운데에도 「조선풍속고」 관련 내용은 없다.

따라서 호코의 요청은 호슈가 조선의 통신사행을 호행하여 에도에서 체류했던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³⁴⁾의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호슈는 10월 15일에 조선의 통신사행과 함께 에도를 출발하여 12월 21일에 쓰시마로 돌아가는데, 「조선풍속고」 작성은 통신사행이 쓰시마번 후츄(府中)에서 조선으로 출발한 1720년 1월 1일 이후 쓰시마번에서 작성하여 1월 중에 에도에 있는 호코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쓰시마번 에도번저에서 남긴 매일기에는 「조선풍속고」가 호코에게 전달된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떤 경로를 거쳐 호코에게 제출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하야시 호코가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그가 아버지 하야시 하루카즈(林春勝)와 함께 편집했던 『화이변태』가 있다. 이 책은 일본에 해마다 내항했던 중국 상인들로부터 청취한 해외정보를 당통사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나가사키 부교를 통해 에도막부에 제출³⁵⁾한 것을 유관이었던 하야시 하루카즈, 호코

33) 허지은, 「근세 막번체제 속의 쓰시마번」 『일본역사연구』 43, 2016, pp.147~148.

34) 対外関係史総合年表編集委員会, 『対外関係史総合年表』, 吉川弘文館, 1999, pp.766~767.

35) 林春勝, 林信篤 編; 浦廉一 解説, 『華夷變態』, 東洋文庫, 1958, p.2.

부자가 연대순으로 편집한 것이다. 1644년부터 1717년까지 약 2,200통에 달하는 당선평설서가 수록되어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적은 양이지만 『화이변태』에는 중국상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선→쓰시마번, 류큐→사쓰마번 경우 정보와 나가사키 테지마의 네덜란드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도 함께 실려 있다.³⁷⁾ 이후 하야시 호코는 1722년분까지 속편인 『기항상설(崎港商說)』을 편집했다.

하야시 호코의 이러한 해외정보 편집 작업은 조선관련 정보를 당시 조선 통으로 알려져 있는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요청하고, 그가 제출한 「조선풍속고」를 통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성립된 배경 등 한반도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성계가 조선의 국왕이 된 이유와 조선의 무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코는 호슈에게 조선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막부의 업무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던 것이다. 에도막부의 다이가쿠노카미로서 해외정보를 정리·편찬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야시 호코는 주자학의 중심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하야시 라잔의 손자로 그가 막부의 다이가쿠노카미에 취임한 이후 이 자리가 세습되어 막부 관학으로서의 하야시 가문의 위상이 정립되지만 그의 학문은 객관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사상적 활력은 모자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기노시타 준앙(木下順庵)의 문하생이었다. 기노시타는 1682년 교토출신의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막부에 등용되어 그때까지 하야시 라잔의 학통, 즉 하야시 가문이 점유하고 있었던 에도의 문단에 교토출신 유학자들이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아라이 하쿠세키, 무로 규소, 아메노모리 호슈 등이 여러 방면

36) 허지은, 「근세일본의 규슈지역 대외창구와 중국관련 정보-『華夷變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70, 2020, p.41.

37) 허지은, 앞의 논문, 2020, p.44.

에서 활약하면 질층적이면서도 다양성이 풍부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³⁸⁾

이처럼 하야시 호코는 아메노모리 호슈와 서로 다른 학문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코는 그가 조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외정보의 정리·편찬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호슈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축적하였다. 이러한 조선관련 지식은 그의 에도막부의 해외정보 정리·편찬 작업에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막부관료 지식인이 아닌 일반 지식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얻고 지식으로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서 유학자였던 가와구치 세이사이(河口静斎)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가와구치 세이사이(河口静斎) ‘조선지식’과 정보유통

가와구치 세이사이는 1703년에 에도에서 태어났다. 무로 규소에게서 수학했으며, 마쓰다이라 도모노리(松平朝矩)가 하리마(播磨; 현재 효고현(兵庫縣)) 히메지(姫路)번주(藩主), 고우즈케(上野) 마에바시(前橋)번주일 때 섬겼다. 이름은 광원(光遠), 자(字)는 자심(子深), 목중(穆仲)이며, 통칭은 삼팔(三八), 별호(別號)는 조산(苧山)이며, 1754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문원류(斯文源流)』, 『저산집(苧山集)』을 저술했다.³⁹⁾ 이 정도가 일본의 『일본인명대사전(日本人名大辞典)』에 나와 있는 세이사이에 대한 설명이다.

마쓰다이라가 히메지 번주가 된 것은 1748년이고, 1767년에 무사시(武藏) 가와코시(川越; 현재 사이타마현(埼玉縣))번의 번주가 되었다.⁴⁰⁾ 그렇다면 세이사이가 마쓰다이라의 가신으로 근무한 것은 1748년부터 1767년까지 약

38)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39) 上田 正昭, 『日本人名大辞典』, 講談社, 2001.

40) 上田 正昭, 『日本人名大辞典』, 講談社, 2001.

20년 정도가 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된다.

현재 확인되는 가와구치 세이사이의 저서로는 『사문원류』, 『향보선정록(享保善政錄)』, 『정재시고(靜齋詩稿)』 등이 있다. 『사문원류』는 규슈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주기(注記)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혀 있다.

일본식 장정(和裝本), 앞뒤에 표지를 붙이고 실이나 종이끈으로 철함(袋綴じ)

필사본(寫本), 책갈피에 넣어져 있음(帙入り)

간기(刊記): 1750년 3월 8일 후학(後學) 가와구치 아들 신키(深記)

1758년 12월 일 시바하마마즈쵸 니초메(芝濱松町二丁目)

후지키히사시시(藤木久市梓)

표지(外題): 사문원류 완(斯文源流 完)

책 표지 안쪽에 붙인 천에 있는 출판자명(見返し of 出版者名)

: 동무서림(東武書林)

옥해(玉海)당재(堂梓)

1초메(丁目) 표에만 광곽(匡郭), 판심(版心), 괘(野) 있음

版心 書名(판심 서명): 사문원류(상부), 보진거장(葆真居藏)(하부)

먹으로 쓴 글씨가 들어가 있음(墨書による書き入れあり)

가와구치 세이사이가 1750년에 『斯文源流』를 저술하고, 후지키 구이치신(藤木久市)이 1758년에 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이사이의 또 하나의 저서인 『저산집』은 현재 우덕도하신사박물관(祐徳稲荷神社博物館) 직향 구장서(直郷舊藏書)로 남아 있는 것을 사문원류신일본고전적총합(斯文源流新日本古典籍総合)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다.⁴¹⁾ 모두 4책으로 되어 있으며, 각 표지에 권수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1책 첫 부분에도 『사문원류』가 수록되어 있

41) 『芋山集』(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4冊 (祐徳稲荷神社 中川文庫 6/3-1/2855. 別8)(<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010352/viewer/10>) 이하 생략.)

으며, 분량은 8페이지에 불과하다. 규슈대학 소장본의 초고로 가와구치 세이사이가 보완하고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후 원문의 비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와구치 세이사이와 그의 저작에 관한 연구는 오바 다쿠야(大庭 卓也)의 연구⁴²⁾가 유일하며, 세이사이의 유학교육사상과에 대한 연구가 한 편 있을 뿐이다.⁴³⁾ 오바 다쿠야의 연구에 의하면 『저산집』의 한 권은 56수의 시를 모아 세이사이가 편집한 것이며, 나머지 세 권은 1725년부터 1753년까지의 여러 종류의 문장 30首를 수록한 것인데, 특히 『사문원류』는 에도시대 초부터 1750년대까지 여러 유학파의 동향과 인물을 논평한 것으로 에도, 교토, 오와리(尾張), 지쿠젠(筑前), 사쓰마(薩摩) 등 각지의 학문을 두루 살피고 공정한 태도로 각각의 장단점을 기록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하였다.⁴⁴⁾

『향보선정록』은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쇼군 습직부터 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건의함인 메야스바코(目安箱)의 설치, 에도의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시약원(施藥院)인 고이시카와 양생소(小石川養生所) 설치, 효자의 표창 등 모두 22개 항목으로 요시무네의 선정(善政)을 예찬한 내용이다. 『정재시고』는 가와구치 세이사이의 시집으로 1720년대 중반부터 1751년 정도까지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다.⁴⁵⁾

한편, 가와구치 세이사이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받아 쓴 『병필록(秉筆錄)』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을 통해 세

42) 大庭卓也, 「江戸時代漢学者の「語録」とその周2：河口静斎「秉筆録」 『久留米大学文学部紀要 国際文化学科編』 26, 2009; 「木門の儒学者たちの文学熱と鍋島直郷 (シンポジウム報告 江戸の〈知〉：蔵書の種々相を考える)」 『調査研究報告』35, 7-19, 2014.

43) 高橋 恭寛, 「河口静斎「小学」論の特徴：江戸中期における儒学教育思想」 『文化 = Culture』79(3・4), 2016.

44) 大庭卓也, 앞의 논문(2009), p.90.

45) 大庭卓也, 앞의 논문(2009), p.91.

이사이에 대해 좀 더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필록』은 4책으로 되어 있으며, 세이사이가 1754년 12월 16일에 사망하고 2년 후인 1756년에 히젠(肥前) 가시마(鹿島) 6대 번주 나베시마 나오사토(鍋島直郷)⁴⁶⁾의 유관인 시모무라 나가미쓰루(霜邨長盈)가 편찬한 것이다.

병필록은 세이사이 선생의 담화(談話)를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어류(語類)이다…우리 나오사토공(公)께서도 전고(典故)를 좋아하고 더욱이 시 짓고 읊은 것을 즐겨서 일찍이 세이사이 선생의 이름을 듣고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 나가미쓰루를 먼저 선생에게 가서 배우게 한 후에 선생을 불러 크게 기뻐하며 「신주맹자(新註孟子)」를 강의하게 했다. 이후 후 한 달에 5, 6번씩 와서 강의를 하게하고 강의가 끝나면 함께 이야기하고 혹은 술을 마시고 혹은 시를 읊으며 서로 달리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친분이 더 두터워지고 끊이지 않은 것이 여러 해였다…(선생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나이 52세로 1754년 12월 16일이다…나오사토공께서 어짐(賢)을 구하는 뜻을 찬미하고, 세이사이 선생의 도(道)를 넓히고자 했던 뜻이 널리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애석히 여겨 항상 말석(末席)에서 선생의 말하는 것을 1750년부터 1753년까지 붓을 꺼내 적어 두었던 것을 책으로 엮었다…

1756(병자)년 8월(中秋) 16일(既望) 시모무라 나가미쓰루 근식(謹識)⁴⁷⁾

나가미쓰루가 쓴 『병필록』의 발문(跋文) 내용이다. 에도에서 가와구치 세이사이(세이사이)는 기상(氣象)이 온자하고 문장에 나타나는 말(文辭)이 아름답고 우아하다(巧麗)고 당시 에도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었다.⁴⁸⁾ 가시마의 다이묘

46) 나베시마 나오사토(鍋島直郷, 1718~1770) 나베시마 나오카타(鍋島直堅)의 장남으로 1728년 히젠(肥前) 가시마(鹿島)번 나베시마家 4대 번주가 되었다. 에도에서 와카(和歌)·詩文·書を 배웠다. 도키와바시(常盤橋) 門番 등을 담당했다. (上田 正昭, 앞의 사전(2001))

47) 『秉筆錄』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23567/viewer/361>)

48) 『秉筆錄』 跋文

가 이런 에도의 세이사이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년 마다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왕복하며 근무해야했던 산킨코타이(參勤交代)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 의해 가시마의 다이묘 나오사토가 에도에서 참근하는 동안 세이사이를 에도번저로 불러 강의도 듣고 논쟁도 벌이며 친분을 쌓았던 것이다. 『병필록』은 바로 세이사이와 나오사토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가시마의 유관이었던 나가미쓰루가 말석에 앉아 세이사이가 말하는 것을 적어둔 것을 모아 엮은 것이다.⁴⁹⁾

『병필록』에 있는 세이사이의 이야기는 모두 900여 가지가 넘으며, 내용은 일본과 중국의 학예에서부터 당시 사람들의 일화, 조선, 네덜란드, 류큐에 관한 것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조선이 언급된 항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병필록』에 수록된 조선 관련 항목

번호	내용	비고
1	사쓰마 배가 달단국(韃靼國)에 표착한 후 북경 → 조선 → 쓰시마 → 나가사키 → 사쓰마의 경로로 돌아갔다는 내용	기타
2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의 병법가 가등준하(加藤駿何)(가등호경(加藤虎景))가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패(貝)를 이용했던 방법에 관한 내용	임진왜란
3	조선에 보내는 편지지는 미노(美濃)(금은으로 그린 모양이 있음)로 두꺼운 회지(懷紙)와 같으며, 말지 않고 접어서 문서상자에 넣는데, 문서 상자는 순은이고 그 겉의 상자는 검은 칠을 한다는 것. 문조공(文昭公)(6대소군 이에노부) 때는 교토 쇼군의 예를 이용하여 서류 상자를 당목(唐木)으로 만들고 조각을 했고 요시무네공(吉宗公; 8대소군)공 때는 다시 예전대로 은상자로 했다는 내용	통신사
4	최근 사쓰마 사람이 풍랑으로 나가사키로 보내졌다가 돌아갔는데, 거쳐 간 나라 사람들에 대한 평으로 조선 사람은 북경사람들만큼 마음이 나쁘지 않았다는 내용	조선인
5	조선에서는 서적에 붙이는 종이를 총명지(聰明紙)라고 한다는 내용	조선풍속

49) 大庭卓也는 『兼筆錄』가 “시모무라 나가미쓰루에 의해 그리고 필시 나베시마 나오사토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베시마 나오사토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전거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발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6	일본의 사쿠라(桜)를 앵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세하지 않았는데, 1711년에 조선 사행이 왔을 때 마침 앵두 꽃 아래 있게 되어 조선인에게 앵두나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서 물었더니 내(桜)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준 것을 보면 조선에도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	통신사
7	조선인 일본인 보다 타고난 근골(筋骨)이 굵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그 실례로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행동들에 관해 언급한 내용	조선인
8	조선 부산포에서 이루어지는 해전 연습과 아메노모리 도쿠노조(德之允)로부터 입수한 조선과 일본에서의 『난형기(蘭亨記)』교육 방법의 차이에 관한 내용	아메노모리 도쿠노조
9	아메노모리 도고로와 그 아들 도쿠노조에 관한 내용	아메노모리 부자
10	1748년 조선의 통신사행의 일원에게 일본의 유학자 기노시타 랑고(木下蘭皋)가 이 히데요시라고 성을 밝히자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만날 수 없다고 한 내용	임진왜란
11	호랑이가 인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호랑이 사냥 방법에 관한 내용	조선풍속
12	사쓰마의 호랑이 그림 현상과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사쓰마의 아시가루 사무라이가 이야기한 호랑이 사냥 경험 및 아시가루 사무라이의 풍정(風情)에 관한 내용	임진왜란
13	천황과 쇼군에 대해 도키(土岐 현재 기후현) 단고노카미(丹後守)노 가신(士)중에 마키 가쿠지로(横角次郎)라는 자가 조선인과 필담한 내용	통신사
14	쓰시마에서 치는 거북점에 대해 아메노모리 호슈가 말한 내용	아메노모리 호슈
15	1748년 조선의 통신사행이 왔을 때 아사쿠사(淺草)절안에 여마당(閻魔堂)의 현판을 여마전(閻魔殿)으로 써준 것에 관한 내용	통신사
16	조선에서 일본 산음도(山陰道)의 안쪽에 해당하는 곳을 진주(辰州)라고 한다는 내용	기타
17	아메노모리 호슈가 임진왜란에 관해 한 이야기	아메노모리 호슈
18	조선인은 모든 것을 일본이 낫다고 여기지만 자국의 물산으로 충분하여 일본에 와서교묘한 기재를 봐도 전혀 모경(慕景)하는 일이 없다는 내용	통신사
19	조선인이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인삼탕에 관한 내용	조선풍속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언급한 항목은 모두 4개, 사쓰마에 관해 언급한 항목은 3개, 아메노모리 호슈와 그의 아들 도쿠노조를 언급한 항목은 3개, 조선의 통신사행에 대해 언급한 항목은 5개, 조선인에 대해 언급한 항목은 2개, 조선의 풍속에 관해 언급한 항목은 3개, 기타 2개 등 모두 19

개의 항목이 조선이 언급되었거나 조선과 관련된 항목이다.

임진왜란과 히데요시를 언급한 항목 가운데 10번, 17번의 내용이 주목된다. 10번은 1719년 조선의 통신사행 때 나고야(名古屋)의 객관에서 통신사를 접대했던 나고야의 유학자였던 기노시타 랑고(木下蘭皐)의 일화이다. 그가 자신의 성(姓)을 히데요시라고 밝히자 통신사행 모두가 같은 하늘아래 있을 수 없는 원수라고 하며 만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다.⁵⁰⁾

기노시타 랑고의 조상은 대대로 아이치군(愛知郡)의 나카무라(中村) 사람으로 도요토미 다이코(太閤)의 동족(同族)이 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오와리(尾張)의 誠公) 때에 널리 영지 안에서 이름있는 집안의 후예로 불리웠다. 명망 있는 집안으로서 녹미를 받고 사적(仕籍)에 들어갔다. 랑고 때에 이르러 시신(侍臣)으로 발탁되었다...1697년, 다이코의 100번째 기일에 랑고가 타이코의 옛 집을 몰아서 찾고 뿔나무를 하고 가죽을 먹이는 것(樵牧)을 금지하고 풍왕(豊王)의 옛 자리에 비를 세웠고, 오규 소라이(荻生徂徠)가 랑고를 위해 ‘풍왕의 옛 집’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다...1719년 가을, 조선의 사자가 오와리를 지나갈 때...아무도 그의 학술에 대해 아는 자가 없어 쓰시마의 記室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강칭하여 동료 사무라이 조현주(晁玄洲)(아사히나 분엥(朝比奈文淵)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필담하였는데 아사히나 분엥은 붓과 종이(筆札)로 높이 평가받았고, 랑고는 한자의 중국식 발음(華音)으로 매우 칭찬받아 두 사람의 이름이 비로소 그때 드러났다.⁵¹⁾

기노시타 랑고는 실제로 히데요시와 동족이었고, 히데요시의 100번째 기일에는 그의 옛집을 찾아 비까지 세웠던 인물이었다. 1719년 조선의 통신사행이 오와리 지역을 지나갈 때 그가 통신사행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병필록』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가 히데요시와 동족인 것을 듣고 통신사행이 거

50) 『秉筆錄』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23567/viewer/179>)

51) 萩野由之監修堀田璋左右・川上多助共編, 『先哲叢談續編』 卷之七, 国史研究会, 1916, p.45.

절했던 것이다. 당시 히데요시에 대한 조선의 통신사행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랑고는 그때까지 자신의 학술에 대해 알아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호슈에게 강청하여 겨우 통신사행과의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통신사행과 필담을 나눈 후 통신사행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후 비로소 그 지역에서 이름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후 조선의 통신사행과의 필담창화집인 가쿠칸사아산슈(客館瓘粲集)에 조선언문(朝鮮諺文)을 넣어 출판했다.⁵²⁾

17번은 아메노모리 호슈가 임진왜란에 대해 “다이코(太閤)의 조선진은 일본에 해가 되었어도 도움이 된 것은 없고, 그저 두부 만드는 법을 배워왔을 뿐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의 통신사행과 관련한 3, 6, 13, 18번 항목 가운데 3번의 내용을 통해서도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쇼군의 국서(國書)를 담은 상자의 모습을 비롯하여 6대 쇼군 때와 8대 쇼군 때의 국서 상자의 자료와 장식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 때 파견되었던 1711년의 통신사행은 하쿠세키에에 의해 화평·간소·대등을 기조로 통신사 내빙제도가 개정되면서 통신사행이 조선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조선에서의 논쟁, 출항 직전의 새로운 국서 교환, 에도에서의 국서를 둘러싼 논쟁, 전례 없는 국서의 상호반환, 쓰시마에서의 최종국서교환 등 이례적인 일이 많았던 통신사행이었다. 이 때 쇼군의 국서 담은 상자도 여느 때와 달리 국서 상자의 재료로 唐木을 사용했고, 그 표면에 조각까지 했던 것을 『병필록』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3번의 내용은 도키 단고노카미의 가신 마키 가쿠지로가 통신사행과 필담할 때 조선인이 “지금 일본 수도(京師)에 천자(天子)가 있는데 관동에 장군

52) 『客館瓘粲集』(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image/F1000000000000044146>)

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조선인이 “신하로서 주군을 멸시(蔑如)하는 것과 같다. 족하(足下)는 부디 의를 따르라”라고 해서 매우 난처했었다는 가쿠지로의 경험담이다.

다음으로 8, 9, 14번의 내용은 아메노모리 호슈와 그의 아들 도쿠노조를 언급한 항목으로 호슈의 아들이었던 도쿠노조가 마쓰우라 기우에몽(松浦儀右衛門)의 양자가 되었고, 마쓰우라 분페(松浦文平)라고 한다는 것, 도쿠노조가 조선에 갔을 때 매해 3월에 조선의 수군이 해전연습으로 보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과 그가 체험한 조선에서의 『난형기』 학습법이 일본에서와 달랐다는 경험담이다.

도쿠노조는 1703년 아메노모리 호슈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717년부터 1719년까지는 호슈를 따라 에도에 가서 학문을 연마했다. 1724년에는 쓰시마번의 유학자였던 마쓰우라 기에몽의 양자가 되어 양부의 가업과 학문을 이었다. 양자가 된 것을 계기로 이름을 마쓰우라 분페로 바꾸었으며, 1728년까지 4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나가사키에 가서 중국어와 한문공부를 했다. 1729년 3월부터 1730년 10월까지 아메노모리 호슈가 공작미연한(公作米年限) 교섭 및 인삼 구청 건 등 당시 조선과의 교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에 사이항(裁判)으로 파견되었을 함께 동행하여 부산왜관에서 체재하였다. 이 때 현장경험과 외교감각을 익히고 조선어 공부도 하면서 조선과 일본에서의 『난형기』 학습법의 차이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31년 결혼할 때쯤에 마쓰우라 산지(松浦贊治)로 개명하였고, 문고과(文庫掛)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1732년 대마번주 소 요시미치(宗義方)의 사후에 『대원원공실록(大衍院公實錄)』 편집에 참여하였고, 1733년에는 조센가타 사야쿠(朝鮮方 佐役)로 조선과 관련되는 기록의 정리·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734년부터는 『분류기사대강(分類紀事大綱)』의 편찬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1734년부터 1737년까지 나가사키에서 체류하며 업무를 병행하였다. 1740년에 분류기사대강 29책(106항목)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자유로운 해외경험이 불가능한 시기에 마쓰우라 도쿠노조는 조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아버지 호슈와 양아버지 마쓰우라 기에몽의 영향으로 에도, 나가사키, 조선에서 유학하며 학문적 소양을 쌓았고 중국어, 한문, 조선어를 공부했다. 그 후 조선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고 업무를 담당했다.⁵³⁾

다음으로 조선풍속에 관해서 언급한 항목은 5, 11, 19번이다. 5번에서는 조선에서 서적에 붙이는 종이를 총명지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총명지는 지방에 나가 있는 관리들이 세밑에 조정의 관리나 친척, 친지들에게 보낼 토산품의 품목을 적은 종이를 조그맣게 접어 편지와 함께 편지 봉투에 넣었다고 한다. 총명지에 대한 조선인의 설명을 들었던 일본인이 잘못 이해하여 조선의 총명지에 대해 일본인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1번은 조선에서 호랑이가 인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호랑이를 사냥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19번은 조선인이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인삼탕에 관한 내용이다. 호랑이와 인삼탕이 일본에는 없는 것이어서 일본인들의 관심이 컸기 때문에 『병필록』에도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병필록』에 실린 조선관련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병필록』이 가와구치 세이사이와 가시마 번주 나베시마 나오사토 사이의 대화 내용 중 세이사이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사토의 질문에 대해 세이사이가 답변한 것이라면 나오사토의 관심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나오사토의 질문에 대해 세이사이가 답변한 것이 아니라 나오

53) 국사편찬위원회, 『分類紀事大綱(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1)』 1권, 국사편찬위원회, 2005, 〈解題〉참조.

사토에게 세이사이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록된 내용이라면 세이사이가 나오사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조선관련 정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가미쓰루가 『병필록』 서문에 “한 달에 5, 6번씩 와서 강의를 하게하고 강의가 끝나면 함께 이야기하고 혹은 술을 마시고 혹은 시를 읊으며 서로 달리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보면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병필록』에서 언급된 조선관련 내용, 즉 조선관련 정보들을 세이사이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가와구치 세이사이가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행을 접대하거나 필담을 나누거나 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이사이가 1703년 에도출생으로 1748년 히메지번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에도에 거주했다면 1711년, 1719년에 조선에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린 나이로 통신사행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또한 그의 스승 무로 규소와 아메노모리 호슈가 모두 기노시타의 제자였다는 점, 무로 규소는 가가번(加賀藩) 출신으로 도쿠가와 쇼군 요시무네 때 함께 기노시타의 문하생이었던 하쿠세키의 추천으로 1711년에 막부에 등용되어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행과 혼간지(本願寺)에서 필담 응접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1719년부터는 쇼군의 시강과 와카키미(若君)의 교육을 담당했고, 『적수의인록(赤穂義人録)』·『조선객관시문집(朝鮮客館詩文集)』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는⁵⁴⁾ 점으로 볼 때 가와구치 세이사가 이들로부터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메노모리 도쿠조도 1703년 출생으로 세이사이와 동갑내기다. 그리고 1717년부터 1719년까지는 호슈를 따라 에도에 와서 학문을 연마했다.

54) 日本教育編, 『貝原益軒·室鳩巢集』 『室鳩巢年譜』, 玉川大学出版部, 1978, pp.487~494.

이 기간에 아버지 호슈와 같은 기노시타의 제자였던 무로 규소의 제자인 세이사이를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의 인연으로 아메노모리 도쿠죠가 쓰시마, 나가사키, 조선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서로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당시 지식인이었던 세이사이가 입수한 조선관련 정보는 나베시마 나오사토 등을 비롯한 다른 지식인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통·확산되어 그들의 조선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에도시대 지식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었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하야시 호코와 가와구치 세이사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에도막부의 유관으로서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야시 호코는 당시 조선통으로 알려져 있는 쓰시마번의 유관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직접 조선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호슈는 그의 요청에 따라 「조선풍속고」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성계가 조선의 국왕이 된 이유와 조선의 무기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선관련 정보는 하야시 호코가 『화이변태』 등 해외정보의 정리·편찬 작업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당시 일본의 일반 지식인이었던 가와구치 세이사이는 기노시타의 제자였던 스승 무로 규소를 비롯하여 관련 인맥을 통해 조선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그가 입수한 정보는 당시 교류했던 히젠 가시마번의 다이묘(大名) 나베시마 나오사토와 그의 유관이었던 시모무라 나가미쓰루에게 유통되었다. 이 조선관련 정보는 이후 나가미쓰루가 편집한 『병필록』에 일본과 중국의 학예, 네덜란드, 류큐에 관한 내용과 함께 수록되었다.

근세 일본은 ‘쇄국’의 시대로 표현된다. 에도막부는 대외창구를 제한했으며,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해외정보는 에도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유통되고 영향을 미쳤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0년 11월 10일

논문 심사일 : 2020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2월 9일

참고문헌

『國書總目錄』(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https://kotenseki.nijl.ac.jp/page/kokusho.html>)

林春勝, 林信篤 編; 浦廉一 解説, 『華夷變態』, 東洋文庫, 1958

萩野由之監修, 堀田璋左右・川上多助共編, 『先哲叢談續編』卷之七, 国史研究会, 1916.

『東槎日記』乾「日記補」

『秉筆録』(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23567/viewer>)

『御留守毎日記』式番(江戸藩邸毎日記)(東京大史料編纂所 所藏; 請求記号: 宗家史料-1-158)

『有徳院殿御實記』권 4

『芋山集』(新日本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4册 (祐徳稻荷神社 中川文庫 6/3-1/2855, 別8)

『朝鮮風俗考』(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雨森芳洲 全書 三)』「朝鮮風俗考」, 關西大學出版部, 1982.)

開國百年記念文化事業會, 『鎖國時代日本人の海外知識-世界地理・西洋史に關する文獻解題』, 乾元社, 1953.

保谷徹編, 『幕末維新と情報』, 吉川弘文館, 2001.

松方冬子, 『オランダ風説書: 「鎖国」日本に語られた「世界」』, 中央公論新社, 2010
_____, 『日蘭關係史をよみとく 上巻: つなぐ人々』, 臨川書店, 2015.

_____, 『オランダ風説書と近世日本』, 東京大学出版会, 2007.

井田清子, 『江戸知識人の世界認識』, 水聲社, 2008.

- 風説書研究會, 『オランダ別段風説書集成』, 吉川弘文館, 2019.
- 허지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 高橋 恭寛, 「河口静斎『小学論』の特徴: 江戸中期における儒学教育思想」『文化 = Culture』79(3・4), 2016.
- 大友一雄, 『江戸幕府と情報管理』(原典講読セミナー/ 国文学研究資料館編 原典講読;11), 臨川書店, 2003.
- 大庭卓也, 「木門の儒学者たちの文学熱と鍋島直郷 (シンポジウム報告 江戸の〈知〉: 蔵書の種々相を考える)」『調査研究報告』35, 7-19, 2014.
- _____, 「江戸時代漢学者の「語録」とその周辺: 河口静斎『秉筆録』」「久留米大学文学部紀要 国際文化学科編」26, 2009.
- 松尾晋一, 「『華夷變態』と對馬宗家からの「唐兵亂」情報」『研究紀要』(1), 2016.
- 日本教育編, 『貝原益軒・室鳩巢集』『室鳩巢年譜』, 玉川大学出版部, 1978.
- 滋賀縣教育委員會編集, 『雨森芳洲關係資料調査報告書』, 高月町立觀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 1995.
- 허지은, 「근세 막번체제 속의 쓰시마번」『일본역사연구』43, 2016
- _____, 「근세일본의 규슈지역 대외창구와 중국관련 정보-『華夷變態』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70, 2020

Abstract

Information activities of early modern Japanese intellectuals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Chosen

Ji-Eun, Her

Modern Japan is expressed in the era of 'Sakoku(鎖國)'. The Edo Shogunate restricted external counters to Tsushima han(對馬藩), Satsuma han(薩摩藩), Matsumae han(松前藩), and Nagasaki(長崎) and was willing to manage information. However, foreign information was circulated and influenced by intellectuals at the time,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Edo shogunate.

Among them, in the case of information related to Joseon(朝鮮), how did intellectuals in the Edo era get information related to Joseon, what was it, and how was it distributed? Hayashi Hoko(林鳳岡), who is a member of the Edo Shogunate and is the best intellectual of the time, directly requested information on Joseon from Amenomori Hoshu(雨森芳洲), a member of the Tsushima han, known as the Joseon expert.

Meanwhile, Kawaguchi Seisai(河口静齋), who was a general intellectual in Japan at the time, obtained information about Joseon through his personal relationships, including his teacher Muro Kyuso(室鳩巢). The information he obtained was circulated to the Daimyo(大名) Nabeshima Naosato(鍋島直郷) of the Hizen(肥前) Kashima(鹿島) Domain whom he had exchanged with at the time,

and to Shimomura Nagamitsuru(霜邨長盈), who was related to him. Information related to Joseon was later included in 『Byeongpilrok(秉筆錄)』 edited by Nagashima Shimomura, and along with information on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the Netherlands, and the Ryukyus, and affected other intellectuals as well.

Key words

information about Joseon, Tsushima han(對馬藩), Hayashi Hoko(林鳳岡), Kawaguchi Seisai(河口静齋), Nabeshima Naosato(鍋島直郷), 『Byeongpilrok(秉筆錄)』